

홍연 노인시조에 나타난 노년의식과 표현방식*

김 아 연**

차 례

1. 머리말
2. 홍연 노인시조의 현황
3. 홍연 노인시조에 나타난 노년의식
4. 홍연 노인시조에 나타난 표현방식
5. 맺음말

| 국문초록 |

1941년 3월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흥사단(興士團, Young Korean Academy) 회집실에서 일제강점기 재미 독립운동가, 언론인, 작가로 활동한 홍연(洪漣, 1880~1951)의 회갑연이 열렸다. 홍연은 회갑연 전후에 노인시조 25수를 지어 『신한민보(新韓民報, The New Korea)』 '사조(詞藻)'란에 발표하였다.

이 글은 홍연의 노인시조에 나타난 노년의식과 표현방식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글은 홍연의 노인시조에 나타난 노년의식을 '몸의 변화, 노화에 대한 한탄, 그리고 허무함', '늪지 않는 마음 및 청춘에 대한 부러움', '노화의 인정과 자연에의 순응',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자아정체성 확인'으로 대별하여 논구하였다. 둘째, 이 글은 홍연의 노인시조에 나타난 표현방식으로 '발화주체가 노년인 시'의 특징인 노년기에 대한 서정성, 사실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시적화자와 구별되는 자연물·타자를 등장시켜 노년과 그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며, 노년은 노쇠·무력·추함과 완속 등 양면성이 드러난다고 파악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작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 노년을 '당한' 것처럼 재현하지만, 노년을 자연현상 중 하나로 인식하고 차츰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작가는 노인시조 창작 초기에는 노년에 대해 한탄하는 정서를 드러내지만, 종국에는 노년에 인격을 완성하려는 성숙미를 드러낸다. 이처럼 홍연의 노인시조는 노년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된 것을

* 이 글은 2023년 11월 18일에 '한국시가문화학회 2023년 동계학술대회(제40차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홍연의 노년 소재 시조에 나타난 노년의식과 표현방식」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토론을 맡아 주신 전남대학교 이옥희 선생님, 동계학술대회 폐회 이후 조언을 주신 전남대학교 김신중 명예교수님, 박종오 선생님을 비롯하여 투고본의 수정에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드린다.

** 광주여자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강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작품 전반에 입체성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핵심어 : 흥언, 신한민보, 노년, 노인시조, 노년의식, 성숙

1. 머리말

흥언(洪焉, 본명 洪宗杓, 1880~1951)은 일제강점기 미국에서 독립운동가, 언론인, 작가로서 활동하였다. 그는 이민선인 껀릭(Gaelic) 호를 타고 1904년 9월 16일에 미국 하와이 주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¹⁾ 그는 이민 초기에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일하였다. 1907년부터 언론인의 삶을 살았던 그는,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 하와이지회 월간잡지 『자신보(自新報, Korean Clarion)』, 한인합성협회(韓人合成協會) 기관지 『한인합성신보(韓人合成新報, The United Korean News)』, 『한인합성신보』의 후신이자 국민회(國民會) 하와이지방총회 기관지 『신한국보(新韓國報)』의 편집·인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²⁾ 그는 1911년 10월 31일에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여, 이튿날인 11월 1일부터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기관지 『신한민보(新韓民報, The New Korea)』의 주필을 맡았다. 그는 ‘동희수부’, ‘추선’, ‘희웅’, ‘리차드 흥’이라는 필명(筆名)을 사용하여 시조, 가사, 한시, 소설, 희곡, 수필 등을 『신한민보』에 발표하였다. 그중 시조는 ‘사조(詞藻)’란에 발표하였는데, <가을 무궁화>(1936년 10월 29일)를 비롯하여 280여 수에 달한다.

흥언 시조의 일부는 조규익이 엮은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 3-작품편:시가-2』³⁾에 수록되어 있다. 흥언 시조의 원문 이미지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테

1) Compiled by Duk Hee Lee Murabayashi ed., *Korean Passengers Arriving at Honolulu, 1903-1905*,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2001, p.54.

2) 이덕희, 『하와이의 한글 언론, 1904~1970』, 『미주 한인의 민족운동』,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해안, 2003, 224~225쪽 하와이의 한글언론(1904~1970). 한편, 이덕희 논문의 말미에 표로 삽입된 하와이의 한글언론(1904~1970)에서 『자신보』, 『합성신보』, 『신한국보』 발행인의 이름인 ‘홍중표’는 흥언의 개명 전 이름이다.

3)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 3-작품편:시가-2』, 조규익 편, 월인, 1999. 한편, 이 자료집에는 <가을 무궁화>(1936년 10월 29일)부터 <시회에 어린이>(1947년 1월 2일)까지 흥언 시조 일부의 입력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집에 누락된 흥언 시조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누리집(<https://db.history.go.kr/>),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누리집(<https://www.nl>

이터베이스 누리집(<https://db.history.go.kr/>)에서 제공하는 『신한민보』⁴⁾를,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누리집(<https://www.nl.go.kr/>)에서 제공하는 『신한민보』⁵⁾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그중 전자는 1909년 2월 10일(제 119호)부터 1945년 12월 27일(제1969호)까지의 『신한민보』 원문 이미지를, 후자는 1948년 기사를 제외하고 1909년 2월 10일부터 1950년 12월 28일(제 2219호)까지의 『신한민보』 원문 이미지를 제공한다.

홍언 시조에 관한 연구는 1989년에 역사학 분야에서 방선주가 재미 독립운동가 홍언의 행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홍언 시조의 일부를 소개하는 데서 출발한다.⁶⁾ 그 이후, 문무학이 『신한민보』에 게시된 유미민 시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홍언의 필명인 ‘동희수부’로 발표된 시조를 다루기도 하였다.⁷⁾ 홍언 시조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 성과는 2000년대에 박미영에 의해 발표되었다. 박미영은 홍언의 시조 형식 실험을 고찰하였고⁸⁾, 홍언의 몽유시조의 양식 시도와 몽유시조에 나타난 작가의식을 논구하였으며⁹⁾, 홍언의 기행시조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적 작가의식을 구명하였다.¹⁰⁾ 박미영 이후에는 김아연이 ‘국화’, ‘제2차 세계대전’, ‘도산의 꽃동산’¹¹⁾, ‘해방공간’을 소재로 하는 홍언 시조를 대상으

go.kr/newspaper/)에서 제공하는 『신한민보』 원문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신한민보』,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npsh>(검색일자 : 2023.11.2.)
- 5)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신한민보』, https://www.nl.go.kr/newspaper/publish_date.do?searchPaper=%EC%8B%A0%ED%95%9C%EB%AF%BC%EB%B3%B4(검색일자 : 2023. 11. 2.)
- 6) 방선주, 「洪馮과 國民會」, 『在美韓人の 獨立運動』,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259~302쪽.
- 7) 문무학, 「일제강점기 流移民 시조 연구-『新韓民報』를 중심으로-」, 『우리말글(구 대구어문론총)』 14, 우리말글학회(구 대구어문학회), 1996.
- 8) 박미영, 「재미작가 홍언(洪馮: 1880~1951)의 시조 형식 모색과정과 선택」, 『시조학논총』 18, 한국시조학회, 2002.
- 9) 박미영, 「재미작가 홍언의 몽유가사·시조에 나타난 작가의식」, 『시조학논총』 21, 한국시조학회, 2004.
- 10) 박미영, 「재미작가 홍언의 미국기행시기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적 작가의식」, 『시조학논총』 25, 한국시조학회, 2006.
- 11)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 1878~1938)가 1917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엔젤레스 노스 피게로아 스트리트 106번지(106 North Figueroa St., Los Angeles, California)로 이사 왔다. ‘도산의 꽃동산’은 안창호가 이 집에 가꾼 정원을 말한다. ‘도산의 꽃동산’의 외관은 존 차 저, 문형렬 역, 『3. 어머니 이혜련』, 『버드나무 그늘 아래-도산 안창호의 딸 안수산 이야기』, 문학세계사, 2003, 58~60쪽 참조.

로 작품의 내용과 작가의식을 고구하였다.¹²⁾

이상과 같이, 이 글은 흥언 시조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흥언 시조는 역사학 분야에서 먼저 소개되었고, 그 이후 문학 분야에서 흥언 시조의 양식 실험, 소재, 심상, 작가의식 등을 다룬 연구가 산출되었음을 알았다. 이로써 흥언의 시조 세계가 지닌 다양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흥언 시조에 관한 연구 성과의 토대 위에서 흥언 시조에 활용된 소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흥언의 노인시조(老人時調)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 글은 노인시조의 개념, 범위, 『신한민보』에 게재된 흥언의 노인시조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흥언의 노인시조에 나타난 노년의식과 이에 대한 표현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 글은 흥언이 노년을 수용·대처하는 방식을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일제강점기 재미 한인 디아스포라 흥언의 노인시조가 한국 노인시조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흥언 노인시조의 현황

한국문학계에서 노인시조(老人時調)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정립은 범효춘, 최선경에 의해 이루어졌다. 범효춘은 고시조 1,355수를 대상으로 50세 이후의 시조 작가가 ‘노인’이라는 시각으로 “노년의 삶, 노인의 정서와 사상을 담은 시조”¹³⁾를 노인시조로 정의하였다. 최선경은 범효춘과 달리 노인시조 작가의 나이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늙음(노화, 노인, 노년 등)을 제재로 한 시조를 통칭하여 ‘노인시조’라 하였다. 작가가 노년에 창작하였더라도 ‘늙음(노화, 노인, 노년 등)’을 제재로 하지 않은 작품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¹⁴⁾고

12) 김아연, 「재미작가 흥언의 국화 소재 시조에 나타난 국화의 심상-〈신한민보〉 게재 작품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64,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김아연, 「흥언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의 내용과 작가의식」, 『한민족어문학』 88, 한민족어문학회, 2020; 김아연, 「흥언의 ‘도산의 꽃동산’ 소재 시가 연구」, 『인문과학』 80,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김아연, 「흥언 해방공간 소재 시조의 내용과 작가의식」, 『운곡논총』 13, 운곡학회, 2023.

13) 범효춘, 「성공적 노화」 관점에서 본 노인시조 주제 연구,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2쪽 주6, 9쪽, 13쪽, 16쪽 발췌 및 요약.

14) 최선경, 「『청구영언(靑丘永言)』 소재 ‘노인시조’의 내용과 수사(修辭)에 대한 일고찰」, 『수사학』

언술함으로써 노인시조의 개념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범효춘, 최선경의 정의를 종합하면, 노인시조는 ‘노년기에 접어든 작가가 노인의 실존을 탐색하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진술하고 생생하게 표현한 시조’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연령을 노인으로 인식하는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노인(老人)을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¹⁵⁾라고 정의한다. 「노인복지법」(1981)상에 노인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¹⁶⁾하기 전까지는 통상적으로 회갑을 맞이하는 만 60세를 최저 노령선으로 보기도 하였다.¹⁷⁾

한편, 홍언의 회갑연은 1941년 3월 23일 저녁 8시에 로스앤젤레스 사우스 카탈리나 스트리트에 위치한 흥사단(興士團, Young Korean Academy) 회집실에서 열렸다.¹⁸⁾ 홍언은 회갑연 직전인 1941년 3월 20일에 <홍도화를 받아주고>를 『신한민보』에 발표한 이래로, 노인시조를 『신한민보』에 간간이 게시하였다. 최선경이 설정한 범위¹⁹⁾에 의거하여 홍언이 지은 시조 중 늙음(노화, 노인, 노년 등)을 제재로 하지 않은 시조를 제외하면, 그의 노인시조는 25수로 선별된다. 다음의 <표>는 홍언이 ‘동희수부’라는 필명으로 『신한민보』에 발표한 노인시조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37, 한국수사학회, 2020, 192쪽 주3 발췌.

1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검색일자 : 2023.11.5.)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시행 1981. 6. 5.] [법률 제3453호, 1981. 6. 5., 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666&cancYd=19810605&cancNo=03453&cefYd=19810605&znwfoYnInfo=N&cfGubun=Y&chrClsCd=010202&cancYnChk=0#0000>(검색일자 : 2024.1.23.)

17) 이현정, 「한국 현대 노년시 연구 시론-노년시의 범주 및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45, 한국시학회, 2016, 257쪽.

18) 「홍언씨의 회갑연」, 『신한민보』, 1941년 3월 27일. 한편, 홍언은 미국에서 단신으로 생활하였다. 그런데 이 기사에 따르면, 홍언의 회갑연에 흥사단우 하상옥(河相玉)의 장녀이자 홍언의 양녀 하소정(河素貞), 안창호(安昌浩)의 장녀 안수산(安繡山), 차녀 안수라(安繡羅) 등 친우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그날 대한인국민회 중앙 상무부·로스앤젤레스 지방회·흥사단에서는 유성기를, 안수산·안수라 자매는 생화를, 재미 독립운동가 한재명(韓在明, 1869~1945)의 아들 한규등은 담배와 라이터를 홍언에게 선물하였다.

19) 최선경, 앞의 논문, 192쪽 주3.

〈표〉 『신한민보』 소재 흥연 노인시조의 현황

연번	제목	『신한민보』 발행일자	흥연 나이
1	홍도화 받아주고	1941년 3월 20일	만 60세
2	흰머리만 남겼노라	1941년 3월 27일	만 60세
3	락화	1941년 4월 10일	만 60세
4	미나리강희 감고	1941년 5월 22일	만 60세
5	고사리 썩거다가	1941년 5월 29일	만 60세
6	황란화	1941년 6월 19일	만 60세
7	문전 一수 홍도화	1941년 6월 26일	만 60세
8	말속한 연안 청포	1941년 7월 3일	만 60세
9	너름에 고향	1941년 7월 31일	만 60세
10	옥란화	1943년 5월 13일	만 62세
11	꽃가지 썩글테면	1945년 3월 1일	만 64세
12	청춘	1945년 3월 29일	만 64세
13	청춘은 밭서 갖고나	1945년 5월 3일	만 64세
14	늙지 안는 청춘	1945년 5월 10일	만 64세
15	락화	1945년 6월 14일	만 64세
16	활작핀 홍도화	1946년 2월 28일	만 65세
17	화 지어	1946년 3월 7일	만 65세
18	꽃을 썩그며	1946년 3월 28일	만 65세
19	고향풍미	1946년 5월 23일	만 65세
20	꽃과 사랑	1946년 5월 30일	만 65세
21	서창	1946년 6월 6일	만 65세
22	청춘이 가니	1946년 6월 13일	만 65세
23	빅운대	1946년 6월 20일	만 65세
24	인경	1946년 8월 22일	만 65세
25	홍도화 엽불 적에	1947년 2월 27일	만 66세

앞의 <표>를 통해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홍언의 노인시조는 25수에 달한다. 연도별로 작품수를 살펴보면, 1941년(만 60세)에 9수(36%), 1943년(만 62세)에 1수(4%), 1945년(만 64세)에 5수(20%), 1946년(만 65세)에 9수(36%), 1947년(만 66세)에 1수(4%)를 발표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⁰⁾ 이처럼 홍언은 여느 해에 비해 1941년, 1946년에 노인시조를 다수 발표하였다. 그중 홍언이 회갑을 맞이한 해인 1941년은 홍언의 노인시조의 발표 초기였다. 홍언은 1941년 이전에는 <가을 무궁화>(1936년 10월 29일)를 시작으로 무궁화, 벚꽃, 장미, 국화, 연꽃, 버드나무 등 화목(花木) 소재 시조, 자신의 동지인 도산 안창호, 그의 가족 및 ‘도산의 꽃동산’ 소재 시조 등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홍언은 회갑을 기점으로 노년을 시조의 새로운 소재로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홍언이 사회 통념에 따라 만 60세를 노인으로 인식하였을 것이고, 노년(老年)은 인간이 겪는 사고(四苦), 곧 생로병사(生老病死) 중 하나이므로 회갑을 맞이한 홍언에게도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월별로 작품수를 살펴보면, 2월에 2수(8%), 3월에 6수(24%), 4월에 1수(4%), 5월에 7수(28%), 6월에 6수(24%), 7월에 2수(8%), 8월에 1수(4%)를 발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중 눈여겨볼 시기는 2~4월, 5~6월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홍사단우 이력서에 홍언의 출생시는 “建國紀元 4213년 2월 27일”²¹⁾로 기록되어 있다. “建國紀元 4213년 2월 27일”은 단기로 변환하면 1880년 2월 27일이고, 양력으로 변환하면 1880년 4월 6일²²⁾이다. 홍언의 생일을 전후한 2~4월에 홍언이 지은 노인시조는 9

20) 이 글에서 제시한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홍언의 노인시조는 1942년, 1944년에 『신한민보』에 발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먼저, 1942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전투 중 코레히도르 전투(1942), 싱가포르 전투(1942), 산호해 해전(1942), 미드웨이 해전(1942), 과달카날 해전(1942), 튀니스 전투(1942~1943) 및 미군의 도쿄 공습(1942) 등이 있었다. 홍언은 1942년 전투를 소재로 시조 16수를 지었다(김아연, 『홍언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의 내용과 작자의식』, 90~91쪽 <표> 『신한민보』에 게시한 홍언의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 목록 참조). 다음으로, 1944년에는 대한민국민회가 출범한 지 3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회 약사」를 『신한민보』에 게시하였고, 1944년 10월 5일부터 1945년 2월 1일까지 「리대위 선싱 고 퉁 심방고」를 『신한민보』에 15차례 연재하였다. 이상과 같이, 1942년, 1944년에는 홍언이 노인시조를 창작하는 데 관심이나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21) 『島山安昌浩全集』 10,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2000, 558쪽.

22)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누리집(<https://astro.kasi.re.kr/index>)에서 제공하는 생활천문관 음양력변환계산(<https://astro.kasi.re.kr/Life/pageView/8>) 서비스를 이용하여 홍언의 음력 출생일을 양력으로 변환하였다. 음력 1880년 2월 27일은 그레고리력에 따르면 1880년 4월 6일, 율리우스

수(36%)에 달한다. 다음으로, 5~6월은 대체로 꽃이 만개하거나 낙화하는 시기이다. 꽃의 생명 주기를 활용한, 흥언의 노인시조는 13수(52%)에 이른다. 이처럼 흥언의 노인시조는 연중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흥언의 노인시조의 제목에는 ‘홍도화’, ‘황란화’, ‘옥란화’, ‘꽃’·‘꽃’·‘화’, ‘락화’ 등 꽃[花]과 관련 있는 단어(12회), ‘청춘’(4회), ‘빅운대’(1회)처럼 고향의 지명과 관련 있는 단어나 ‘고향’(2회)처럼 고향을 지시하는 단어, ‘흰머리’(1회) 등이 주로 나타난다. 먼저, 꽃은 자연물이지만, 꽃의 전성기, 소멸기는 인간의 청춘, 노년과 각각 유사하다. 다음으로, 청춘은 노년과 대비되는 단어이다. 그 다음으로, 고향은 유년기의 기억과 경험이 응집된 공간이자 원초적으로 회귀하고 싶은 공간이다. 끝으로, ‘흰머리’는 노년의 신체 변화를 나타낸다. 이처럼 흥언은 노년을 내포하는 시어를 작품의 주제를 집약하는 제목에 직접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흥언이 그의 필명이 ‘동희수부’임을 알았던, 당대의 『신한민보』 재미한인 독자와 노인시조의 생산 주체와 생산 맥락을 공유하고자 하였음을 추고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이 글은 흥언이 지은 노인시조의 연도별·월별 작품수, 제목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흥언이 만 60세에 노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였고, 흥언의 노인시조는 만 60세 이상의 작가 흥언이 노년의 삶과 그에 대한 단상을 재현한 시조임을 알 수 있다.

3. 흥언 노인시조에 나타난 노년의식

3.1. 몸의 변화, 노화에 대한 한탄, 그리고 허무함

중년 이후, 노화를 자각하게 해주는 신체적 변화 중 하나는 흰머리, 곧 백발(白髮)이다. 다음은 <흰머리만 남겼노라>(1941년 3월 27일)이다.



시인은 울건만은 세상이 웃는고나

력에 따르면 1880년 3월 25일이다. 그런데 이 글은 전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에 따라 흥언의 양력 생일을 1880년 4월 6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함을 미리 밝힌다.

◆
너몸을 도라보고 이제야 뉘웃나니

◆
번외로 가는 一칭에 흰머리만 남겼노라.

위의 <흰머리만 남겼노라>에서 작가는 자신을 ‘시인’으로 타자화(他者化)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몸을 돌아보고, 그 결과 중·종장에서 “이제야 뉘웃나니/번외로 가는 一칭에 흰머리만 남겼노라.”고 탄식한다. 곧 독립운동, 언론활동으로 번뇌하며 일생을 보내는 시인이 노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몸이 노화한 현실을 문득 자각하게 된 것이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세상의 이치 속에서 시인이 노화에 맞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시인은 무력감,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초장에서 “시인은 울건만은 세상이 웃는”다고 언지한다. 이처럼 <흰머리만 남겼노라>는 ‘흰머리’를 작품의 전면에 내세워서 노화에 대한 시인의 한탄을 드러낸다. 다음은 <옥란화>(1943년 5월 13일)이다.

◆
씩씩한 옥란화는 정녀가 네로구나

◆
시인이 익기는 것 춘광이 겨우 사흘

◆
늙으면 미워질세라 미리 썩어진다면.

위 <옥란화>의 초장에서 작가는 늙지 않는 ‘옥란화’, 곧 시들지 않는 ‘옥란화’에 대해 ‘깨끗함’, ‘정녀(靜女)’의 이미지를 부여한 다음, 중장에서 ‘시인이 아끼는 것’이라고 명명한다. 그런데 작가는 초·중장에서 춘광 아래 ‘옥란화’가 한창 아름다운 시기는 겨우 사흘이고, 시간이 지나 시들면 깨끗하지 않아 미워질까 두렵다고 언술한다. 그리하여 작가는 중장에서 ‘옥란화’가 시들기 전에 깨끗하고 아름다울 때 미리 떨어지는 것이 낫다고 언급한다. 이로써 작가는 시인이 아끼는 ‘옥란화’가 금세 시드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인생은 짧고, 젊음은 한순간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동시에 늙음을 경계한다. 다음은 <청춘이 가니>(1946년 6월 13일)이다.

◆
유정한지 무정한지 청춘이 고만 가니

◆
락화는 적적하고 버들이 잠든 곳에

◆
춘몽을 남겼다가나 흔적조차 업스니.

시간이 흐르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청춘이 지나간다. 생물에 해당하는 꽃도 청춘이 지나가면, 낙화가 된다. 그런데 중·중장과 같이 ‘낙화’는 앞날에 대한 어떠한 여지도 남기지 않고, 그 흔적도 없다. 곧 ‘낙화’는 덧없는 인생을 마감하면서 소멸하는 것이다. 작가는 ‘낙화’를 통해 ‘노화의 현실’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정된 ‘개체의 죽음과 소멸’이라는 존재론적 한계, 거기에서 발로된 삶에 대한 연민, 서글픔, 허무함을 드러낸다.

3.2. 늙지 않는 마음 및 청춘에 대한 부러움

노년은 노인에게 현재의 삶을 우울하고 절망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젊음에 대한 열망과 부러움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만들기도 한다. 다음은 <락화>(1941년 4월 10일)이다.

◆
락화가 되기 전에 피는 꽃 고앗나니

◆
백발이 업슬게면 젊음이 한창이라

◆
덤덤홍 쇼쇼백발 늙겨운들 어이리.

위 <락화>의 초·중장에서 작가는 ‘낙화가 되기 전의 고운 꽃’을 ‘젊은이’에, ‘낙화’를 ‘백발’의 늙은이에 비유한다. 이를 통해 작가가 꽃의 ‘낙화’와 인간의 ‘노화’를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장에는 ‘젊은이’와 상반된 ‘소소백발(昭昭白髮)’이 여기저기 울긋불긋 핀 꽃[덤덤홍, 點點紅]을 느끼는 흥을 언술한다. 곧 작가는 이질적인 ‘점점홍’과 ‘소소백발’의 결합을 통해 노화된 신체와 달리 늙지 않는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늙으면 마음 또한 그

릴 것이라는, 비노인(非老人)의 편견을 일축하는 것이다. 다음은 <청춘>(1945년 3월 29일)이다.

◆
청춘이 조타거니 잊지서 조타는지?

◆
비오고 바람 불고 에난 듯 출건마는

◆
거기서 피는 꽃 보고 청춘이 조타거니.

위의 <청춘>에서 작가는 ‘청춘’이 좋은 이유에 대해 자문자답(自問自答)한다. 작가는 중·장장에서 비, 바람, 추위를 이겨내고 피는 꽃을 보고 나서, 이를 계기로 ‘청춘’이 좋다고 언술한다. 여기에서 비, 바람, 추위는 꽃의 생장을 방해하는 요소로써 ‘시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꽃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을 ‘청춘’에서 찾았다. 시련을 극복한 꽃은 청춘이 가 버린, 노쇠한 육체의 작가와 달리 무력하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춘’은 작가가 부러워하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3.3. 노화의 인정과 자연에의 순응

빌헬름 슈미트(Wilhelm Schmidt)는 “나이듦의 자연적 의미는 각자가 자기 삶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차츰 익숙해지는 것”²³⁾이며, “나이듦에 부여될 수 있는 문화적 의미는 지금의 삶을 좀 더 수월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정신적 원천을 발견하는 데 있다. 마음의 평정이 그러한 원천 중 하나”²⁴⁾라고 언술한 바 있다. 홍언 역시 삶의 원숙기에 찾아온 신체의 노화를 인정하고, 노년의 심리적 평온함을 작품에 드러내기도 하였다. 다음은 <화 지어>(1946년 3월 7일)이다.

◆
꽃치란 화작작이 쪼타고 하지만은

23) 빌헬름 슈미트 지음, 장경태 옮김, 『나이든다는 것과 늙어간다는 것-마음의 평정에 이르는 10가지 길』, 책세상, 2014, 16쪽.

24) 빌헬름 슈미트 지음, 장경태 옮김, 앞의 책, 17쪽.

◆
다 피여 늙어지면 늙은 꽃 실타나니

◆
두어라 초타건 말건 드문드문 필게나.

위 <화 지어>의 초·중장의 맥락을 살펴보면, ‘화작작(花灼灼):늙은 꽃=좋다:싫다’라는 이분법적 발상이 작품의 기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장에서 “두어라” 하고 발화함으로써, ‘늙은 꽃’이 싫다는 판단에 대한 유보 또는 반전이 일어날 것을 예고한다. 그리고 나서 시적화자는 ‘늙은 꽃’이 좋든 말든 드문드문 필 것이라고 언술한다. 곧 꽃이 늙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시적화자는 ‘늙은 꽃’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화 지어>는 노화와 거리두기를 하기보다는 노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작가의 순응적 태도를 보여준다. 다음은 <꽃과 사랑>(1946년 5월 30일)이다.

◆
자연과 미진 인연 꽃사랑 하는 풍경

◆
문장이 향기롭고 마음도 평안하다

◆
아마도 꽃사랑에서 늙어질가 하노라.

인간도, 꽃도 자연의 일부이다. 인간, 꽃, 자연이 호혜적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시적화자인 시인은 꽃을 사랑하는 인간으로 등장한다. 그 결과, 중장과 같이 시인의 문장은 향기롭고 시인의 마음은 평안하다. 때문에 중장에서 시인은 ‘꽃사랑’을 하면서 노년을 보내려는, 정결하고 고결한 의지와 소박한 소망을 드러낸다. 이로써 자연의 섭리 중 하나인 ‘늙음’이라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작가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고, 단신으로 타국에서 사는 작가가 꽃과 함께함으로써 노년의 외로움, 적적함²⁵⁾을 해소하며 마음의 위안을 받고자 하였음을

25) 방선주는 흥언이 “또 자손이라도 있었다면 하는 마음으로 (중략) ‘열매라도 있다면’을 지었을 것이다.”(방선주, 앞의 논문, 293쪽)고 추정한 바 있는데, 필자는 방선주의 이러한 추정에 동의한다. 흥언은 시조 <청춘은 발서 갖고나>에서 꽃이 진 후에 열매를 맺은 꽃과 청춘이 지난 후에 자손을 남기지 못한 자신의 현실을 대조함으로써, 단신으로 지내는 자신의 현실에서 발로된 미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꽃사랑’은 시인이 노년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식이자 자연의 섭리 속에서 자아완성을 위해 마음을 수양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꽃과 사랑>은 작가가 ‘꽃사랑’이라는 경험을 토대로 노년을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평온하게 보내려는 의지, 인격의 완성을 이루려는 다짐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신선>(1944년 8월 31일)이다.

◆
 붉은 꽃 들린 산전 흰머리 늙은 농부
 ◆
 높은 소 밭을 갈 제 진땀이 흘으거늘
 ◆
 아래서 보는 사람은 신선인가 하눗다.

위의 <신선>은 갈래상 노인시조인 동시에, 전가시조(田家時調)이기도 하다. <신선>에서 ‘흰머리 늙은 농부’는 누런 소로 밭을 갈고 있어서 진땀을 흘린다. 이로써 노년의 고단함과 노동의 고통을 드러낸다. 하지만 <신선>의 시적화자인 ‘아래서 보는 사람’은 ‘흰머리 늙은 농부’를 ‘신선’으로 여긴다. 곧 밭갈이는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노동이라기보다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전원생활의 일부인 것이다. 따라서 위의 작품은 초월적 존재인 ‘신선’을 작품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신한민보사 주필, 대한민국민회 부회장, 구미위원부 화교위원 등 재미한인 사회에서의 역할을 잠시 미루고 노년에 자연에서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작가의 이상적인 삶을 읊는다고 할 수 있다.

3.4.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자아정체성 확인

서울 동남부 지역이 고향으로 추정되는 작가는²⁶⁾, 대한민국민회 기관지 『신

련과 쓸쓸함을 드러낸 것으로 추고된다. 다음은 <청춘은 밭서 갖고나>(1945년 5월 3일)이다.

◆
 푸른 님 헤쳐가며 꽃 있나 차져보니
 ◆
 꽃 엮는 빈 가지에 열미를 땀껏스니
 ◆
 청춘은 밭서 갖고내 열미라도 잇다면.

한민보』를 통해 언론 활동을 전개하면서 일생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냈다. 또한, 작가는 1919년, 1921~1922년에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의 중화인 교섭위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위원부의 화교위원 자격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강연, 독립자금 모금 활동을 하였던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그해 가을에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서 고국방문단을 조직하였다.²⁷⁾ 하지만 작가는 왕복 여비와 고국에서의 숙박비를 마련하지 못해 고국방문단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결국 작가는 광복을 맞이한 고국의 땅을 밟지 못한 채, 미국에 영주하다가 진행성폐결핵으로 1951년 3월 25일에 사망하였다.

일제강점기 재미한인 디아스포라였던 작가의 이러한 삶을 미루어 보면, 작가의 이주는 그의 삶의 측면에서나 시적 공간의 측면에서나 원초적 공간인 ‘고향’이라는 중심 세계에서 탈피하는 과정이자 ‘타국’, ‘타향’이라는 이질적인 세계로 편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작가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고향’이라는 중심 세계와 ‘타국’, ‘타향’이라는 이질적인 세계의 ‘차이’ 속에서 결핍과 부재를 인식하고 고국과 고향을 ‘채움’의 대상으로 여겼을 것이다.

작가는 1941년 3월 23일 회갑연 직전인 1941년 3월 20일 자 『신한민보』에 <홍도화 받아쥐고>를 시작으로 옛 공간, 옛 추억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시조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작가는 노년의 헛헛한 내면 공간²⁸⁾을 채우고자

26) 박미영, 「재미작가 홍언의 몽유가사·시조에 나타난 작가의식」, 168쪽.

27)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고국방문단은 1진, 2진으로 나누어 출발하였다. 1진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한시대, 김호, 전경무, 김성락, 김병연, 송종익 등 6명으로 구성되었고, 고국방문단의 단장은 한시대였다. 고국방문단은 1945년 10월 26일 오전 1시에 로스앤젤레스 앨라미다 해밀턴 비행장에서 미군이 제공한 항공기 편으로 출발하였고, 11월 4일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11월 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대강당에서 개최된 <해외귀국동포환영회>에 참석하였다. 2진은 김원용, 도진호, 최두옥, 정두옥, 조계연, 안창호, 박금우, 안정송 등 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1946년 1월 26일에 하와이에서 출발하였고, 2월 9일에 인천항에 입항하여 2월 12일에 인천군청 관용차로 서울에 도착하였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미령한인대표의 ■면」, 『신한민보』, 1945년 10월 25일; 「대표단 하와이 발착」, 『신한민보』, 1945년 10월 25일; 「하와이 한인의 미령한인 대표단 환영」, 『신한민보』, 1945년 11월 22일; 「해외귀국동포 환영 강연」, 『신한민보』, 1945년 12월 20일; 「바라는 건 祖國獨立뿐…布哇의 七千 同胞도 歸國을 念願」, 『자유신문』, 1946년 2월 14일; 「在美韓族聯合委員 八氏歸國」, 『중앙신문』, 1946년 2월 14일; 이현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대표단의 귀국과 정치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6~7쪽 참조.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홍도화 받아쥐고>(1941년 3월 20일)이다.

◆
홍도화 받아쥐고 홀연히 고향싱각

◆
한양성 옥동도화 청춘이 김히 있고

◆
빅일이 고요한 사립문에 청삼사리 누엇더니.

[주 ■²⁹■■ 어느 로인이 홍도화를 씌어다 주 거슬 받아쥐고 이 시를 써서 고향의
늑감을 기록함.

위에서 인용한 <홍도화 받아쥐고>의 중장과 [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작가는 어느 노인이 자신에게 꺾어다 준 홍도화를 계기로 고향 서울, 곧 ‘한양성’에 만발하였던 도화, ‘한양성’에 소재한 자신의 고향 집을 연상한다. 작가는 중장에서 자신의 고향 집을 ‘대낮[빅일]에 고요한 사립문에 청삼사리가 누워 있는 곳’으로 그려낸다. 이처럼 작가는 시선의 끝을 평화로운 정경의 고향 집으로 향하게 한다. 이로써 회상연을 앞둔 작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애뜻함을 표현한다.³⁰ 다음은 <녀름에 고향>(1941년 7월 31일)이다.

28) 방선주는 홍언에 대해 “그는 분명히 서울 어느 모퉁이의 生家, 홍도화 한그루 있고 청삼사리 넘나들던 그 생각을 생각하며 간절한 향수병에 걸리곤 한 모양이다.”(방선주, 앞의 논문, 293쪽)고 언급한 바 있다. 방선주의 이러한 언급에 의거하여 홍언이 향수병에 걸렸음을 추단할 수 있고, 이 향수병을 시 창작으로써 달랜 것으로 추고할 수 있다.

29) 이 글은 인용문에서 판독이 어려운 글자는 약물 ‘■’로 표기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30) 홍언은 1941년 3월 23일 회갑연 이후에도 <홍도화 받아쥐고>(1941년 3월 20일) 외에 서울의 지명을 활용한 시조, 고향 집의 평화로운 정경을 묘사한 시조를 『신한민보』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표 1>은 홍언의 시조에 활용된 시어 중 홍언 고향인 서울과 관계된 ‘지명’, 홍언이 기억하는 고향·고향집의 ‘이미지’에 관계된 시어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홍언의 시조에 시어로 활용된 홍언 고향의 ‘지명’, ‘이미지’

작품명	『신한민보』 발행일자	홍언 고향의 ‘지명’, ‘이미지’에 관계된 시어
홍도화 받아쥐고	1941년 3월 20일	홍도화, 한양성[한양성], 옥동도화, 사립문, 청삼사리
청풍교	1941년 5월 1일	인왕산, 청풍교

◆
호박닙 쌈을 싸고 푸고추 저리김치
◆
서늘한 오이싱치 파팅국 껏드리니
◆
비스름 녀름에 고향 도라운가 하노라.

위 작품의 초·중장은 ‘호박닙쌈’에 ‘푹고추’, ‘(꺾)절이김치’, 시원한 ‘오이쌈 채’와 ‘파냉국’을 곁들이는 여름철 상차림을 묘사한다. 작가는 비록 이 음식들을 ‘현재’ 타국인 미국에서 먹고 있지만, 이 음식들을 매개로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과거’의 여름철 고향을 소환한다. 그래서 작가는 중장에서 비슷하게나마 ‘여름의 고향’에 돌아온 것 같다고 언술한다. 여기에서 ‘여름의 고향’은 타국에서 노년을 보내는 작가에게 현재 결핍된 시공간이다. 이처럼 <녀름에 고향>은 여름철 음식, 미각을 매개로 고향의 기억을 부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작가에게 고향 음식 자체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하고, 작가가 디아스포라로서 체감하는 현실의 결핍을 고향에 대한 동경으로 채우려는 작품³¹⁾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명	『신한민보』 발행일자	홍언 고향의 ‘지명’, ‘이미지’에 관계된 시어
황란화	1941년 6월 19일	삼각산, 백운대[백운대]
문전 一수 홍도화	1941년 6월 26일	홍인문, 사천[사천], 버들, 수간초옥, 홍도화
우리집 수간초옥	1945년 5월 17일	우리집, 수간초옥
향화	1946년 5월 9일	향화
백운대	1946년 6월 20일	백운대[백운대], 한복문[한복문]

31) 홍언은 <녀름에 고향>(1941년 7월 31일) 외에도 고향 음식과 그 풍미를 소재로 한 시조를 『신한민보』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표 2>는 홍언의 시조에 활용된 시어 중 고향 음식에 관계된 시어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홍언의 시조에 시어로 활용된 ‘고향 음식’

작품명	『신한민보』 발행일자	‘고향 음식’에 관계된 시어
미나리강회 감고	1941년 5월 22일	미나리강회, 감국저너[국화납전]
고사리 썩저다가	1941년 5월 29일	고사리나물

이러한 맥락에서 음식, 고향은 작가에게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이 글은 홍언의 노인시조에 나타난 노년의식을 ‘몸의 변화, 노화에 대한 한탄, 그리고 허무함’, ‘늙지 않는 마음 및 청춘에 대한 부러움’, ‘노화의 인정과 자연에의 순응’,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자아정체성 확인’ 등 네 가지로 대별하여 살펴보았다. 그중 ‘몸의 변화, 노화에 대한 한탄, 그리고 허무함’, ‘늙지 않는 마음 및 청춘에 대한 부러움’, ‘노화의 인정과 자연에의 순응’은 노인시조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노년의식이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자아정체성 확인’은 ‘재미한인 디아스포라’라는 작가의 특수한 처지에서 기인한 노년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홍언의 노인시조는 노년에 대한 홍언의 자기 고백임을 알 수 있다.

4. 홍언 노인시조에 나타난 표현방식

홍언의 노인시조에 나타난 표현방식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홍언의 노인시조는 텍스트의 생산 주체와 텍스트 표면의 발화 주체가 모두 노년이다. 이현정은 ‘발화 주체가 노년인 시’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발화 주체가 노년인 시’는 노년의 발화 주체가 노년에 대한 것이나 다른 어떤 것에 대해 발화한 시를 말하는데, 이때의 발화 주체는 생산 주체(시인)와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굳이 작가와 동일시하지 않더라도, 텍스트 표면에 노년의 어조를

작품명	『신한민보』 발행일자	‘고향 음식’에 관계된 시어
말속한 연안 청포	1941년 7월 3일	홍계원[홍계원] 인절미[인절미], 연안 청포[청포], 해의[회의], 탕평채[탕평차]
너름에 고향	1941년 7월 31일	호박잎쌈[호박닙쌈], 풋고추[푸고추], (겉)절이김치[저리김치], 오이생채[오이싱채], 파냉국[파냉국]
고향풍미	1946년 5월 23일	미나리강회, 수란, 실고추, 셋불이[셋붓치], 산병[삼병]

피는 노년의 주체가 현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시를 말한다. (중략) 발화 주체가 노년인 시들의 경우, 생산 주체와 발화 주체의 거리가 가깝고, 노년의 심리 및 문제 등이 보다 직접적으로 발화되므로 서정성과 사실성이 강화되는 특징이 있다. 노년의 발화 주체들은 늙음에 대한 비탄의 감정을 바탕으로 노년에 겪게 되는 소외 현상 및 여러 문제점들을 우울한 어조나 자조적인 어조로 발화하는 한편, 노년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철학적 사유나 깨달음, 또는 노년이 주는 행복 등을 관조적이고 긍정적인 어조로 발화하기도 한다.³²⁾

위에서 인용한 이현정의 설명은, ‘발화 주체가 노년인 시’는 노년의 심리, 문제, 노년의 경험을 통해 획득한 철학적 사유 등을 직접 발화하기 때문에 서정성, 사실성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요약할 수 있다. ‘발화 주체가 노년인 시’의 이러한 특징은 홍언의 노인시조에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홍언의 노인시조는 노년의 주체가 늙음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늙는다는 것’에 대한 허탈감, 체념을 ‘흰머리’, ‘낙화’ 등 구체적인 사물로 이미지화하고 있으므로, 노년에서 기인한 슬픔을 사실감 있게 표현한다. 둘째, 홍언의 노인시조는 ‘단신의 외로움’, ‘디아스포라로서의 미국 영주와 향수병’, ‘죽음과 소멸’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 발화 주체는 우울한 어조로 발화한다. 셋째, 홍언의 노인시조는 자연에서 노년의 삶을 누리는 편안함과 여유에서 ‘꽃사랑’, ‘신선’과 같은 철학적·성찰적 어조를 활용한다. 이처럼 홍언의 노인시조는 노년기를 보내는 발화 주체의 삶과 정서를 3장 6구의 정형화된 형식에 응집·표출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서정성과 사실성이 두루 나타난다.

다음으로, 홍언의 노인시조는 시적화자와 구별되는 자연물·타자를 등장시켜 노년과 그에 대한 정서를 드러낸다. 먼저, 홍언의 노인시조는 자연물을 작중 소재로 끌어들이어 시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노년과 자연물의 동질성을 표현한다. 홍언의 노인시조에서 노년을 비유하는 자연물로는 ‘낙화’(<락화>, 1941년 4월 10일), ‘(사흘 후에 떨어지는) 옥란화’(<옥란화>, 1943년 5월 13일), ‘다 늙어 쇠잔한 꽃’(<꽃가지 석글테면>, 1945년 3월 1일), ‘(열매를 맺기 전) 꽃 업는 빈가지’(<청춘을 밭서 갖고나>, 1945년 5월 3일), ‘늙은 꽃’(<화 지어>, 1946년 3월 7일)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작가가 꽃의 생명 주기와 인간의 생애 주기가

32) 이현정, 앞의 논문, 259~260쪽.

같다고 여기고, 꽃과 인간을 동질적으로 것으로 파악하는 유비적 표현을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홍언의 노인시조는 노년의 시적화자와 동질적인 타자, 이질적인 타자를 등장시킨다. 노년을 비유하는 타자로 ‘(흰머리의) 시인’(<흰머리만 남겼노라>, 1941년 3월 27일), ‘쇼쇼백발(昭昭白髮)’(<락화>, 1941년 4월 10일), ‘(늙는) 미인’(<락화>, 1945년 6월 14일), ‘로처녀’(<꽃을 썩 그며>, 1946년 3월 28일), ‘백발싱이’(<서창>, 1946년 6월 6일)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작가가 자신과 같이 신체의 노화를 경험하는, 동질적인 타자를 내세움으로써 노년의 쓸쓸함을 표현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덤덤홍(點點紅)’·‘젊은이’(<락화>, 1941년 4월 10일), ‘청춘’(<청춘>, 1945년 3월 29일)은 이질적인 타자로 등장한다. 그중 ‘덤덤홍(點點紅)’·‘젊은이’는 노년의 작가와 달리 외양이 다른 가시적·실재적 타자이고, ‘청춘’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써 비가시적·관념적 타자이다. 이로써 작가는 이질적인 타자를 통해 자신의 늙음과 대비하기도 하고, 젊음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끝으로, 홍언의 노인시조에 나타난 노년은 노쇠·무력·추함과 완숙의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흰머리만 남겼노라>(1941년 3월 27일)에서는 노화에 저항하지 못하는 시적화자, <청춘>(1945년 3월 29일)에서는 비, 바람, 추위를 견디고 피는 꽃과 다르게 무력한 시적화자를 통해 노년의 노쇠, 무력을 보여준다. <옥란화>(1943년 5월 13일)에서는 절정기에 이른 지 사흘 후에 낙화하여 미워질 것이 걱정되는 옥란화를, <화 지어>(1946년 3월 7일)에서 다 피여 늙어지면 (싫다고 하는) 늙은 꽃을 작품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노년의 추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반면, <꽃과 사랑>(1946년 5월 30일)에서는 ‘꽃사랑’을 하면서 늙어가겠다는 시적화자의 지향을, <신선>(1944년 8월 31일)에서는 강호한정(江湖閑情)을 즐기는 ‘신선’을 통해 성숙하고 완숙한 존재로서의 시적화자를 형상화한다. 이를 종합하면, 홍언의 노인시조는 노년의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5. 맺음말

주지의 사실과 같이, 시조문학사에서 노인시조는 고려 말 우탁(禹倬)의 시조

<탄로가(歎老歌)> 2수에서 출발한다. 지금까지 이 글은 한국문학의 연속선상에서 홍언이 1940년대에 지은 노인시조 25수를 대상으로 노년의식과 표현방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글은 홍언의 노인시조에 나타난 노년의식을 ‘몸의 변화, 노화에 대한 한탄, 그리고 허무함’, ‘늡지 않는 마음 및 청춘에 대한 부러움’, ‘노화의 인정과 자연에의 순응’,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자아정체성 확인’으로 대별하여 논구하였다. 또한, 이 글은 홍언의 노인시조에 나타난 표현방식으로 ‘발화주체가 노년인 시’의 특징인 노년기에 대한 서정성, 사실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시적화자와 구별되는 자연물, 타자를 등장시켜 노년과 그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며, 노년은 노쇠·무력·추함과 완숙 등 양면성이 드러난다고 파악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작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 노년을 ‘당한’ 것처럼 재현하지만, 노년을 자연현상 중 하나로 인식하고 차츰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작가는 노인시조 창작 초기에는 노년에 대해 한탄하는 정서를 드러내지만(anti-aging), 중국에는 신체의 노화를 인정하고 노년에 인격을 완성하려는 성숙미를 드러낸다(well-aging). 이처럼 홍언의 노인시조는 노년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작품 전반에 입체성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한편, 이 글에서 살펴본 논의를 토대로 일제강점기·해방공간에 지은 홍언의 노인시조는 시기상 고시조의 세부 갈래인 노인시조와 현대 노인시조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시조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고시조의 노인시조에 나타나는 노년의식은 대체로 노년에 대한 탄식 또는 순응, 신체의 변화, 일·자연에 대한 노년의 즐거움, 노년의 외로움, 인격의 성숙함, 타인에게 시간의 흐름에 대한 경계, 죽음에 대한 수용 등으로 일별할 수 있다.³³⁾ 한편, 현대 노인시조 연구는 고시조의 노인시조 연구와 달리, 학계에 발표된 연구 성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³⁴⁾ 그중 노인이 된 작가가 쓴 현대 노인시조로는 이태극(李泰極, 1913~2013)의 노인시조가 대표적이다. 박영우는 이태극의 노인시조에 나타나는 노년의식은 추억에 대한 그리움, 유한자로서 자아성찰을 통

33) 범효춘, 앞의 논문, 44~190쪽; 김상진, 「時調에 나타난 ‘老年’의 考察」, 『어문논집』 69, 중앙어문학회, 2017, 195~207쪽; 최선경, 앞의 논문, 192~206쪽.

34) 박영우, 「이태극 시조에 나타난 노년, 죽음의식 연구」, 『국어문학』 53, 국어문화회, 2012; 조춘희, 「현대시조에 나타난 ‘할머니’ 양상 연구」 『우리시대 현대시조 100인선』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79, 한국문학언어학회, 2019.

한 육화(肉化)한 죽음의식, 사후 물아일체(物我一體) 의식 등으로 정리한 바 있다.³⁵⁾ 이처럼 홍언의 노인시조에 나타난 노년의식은 고시조의 노인시조, 현대 노인시조와 그 결이 유사하다. 그런데 홍언의 노인시조는 고시조의 노인시조, 현대 노인시조와 달리, 재미한인 디아스포라로서 체험하는 노년의식에서 변별력이 드러난다. 이러한 점에서 홍언의 노인시조는 노인시조의 창작적 관습 속에서 재미한인 디아스포라의 독자적인 노인담론 또는 노년담론을 형성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홍언의 노인시조는 고시조의 노인시조와 현대 노인시조를 연결하는 일제강점기·해방공간 노인시조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 노인이 된 작가가 쓴 노인문학 또는 노년문학의 범주에서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35) 박영우, 앞의 논문, 76~90쪽.

참고문헌

1. 1차 자료

『島山安昌浩全集』 10,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2000.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신한민보』,

https://www.nl.go.kr/newspaper/publish_date.do?searchPaper=%EC%8B%A0%ED%95%9C%EB%AF%BC%EB%B3%B4(검색일자 : 2023.11.2.)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중앙신문』,

https://www.nl.go.kr/newspaper/publish_date.do?searchPaper=%EC%A4%91%EC%95%99%EC%8B%A0%EB%AC%B8(검색일자 : 2024.2.19.)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자유신문』,

https://www.nl.go.kr/newspaper/publish_date.do?searchPaper=%EC%9E%90%EC%9C%A0%EC%8B%A0%EB%AC%B8(검색일자 : 2024.2.1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신한민보』,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npsh>(검색일자 : 2023.11.2.)

2. 2차 자료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 3-작품편:시가-2』, 조규익 편, 월인, 1999.

3. 논저

김상진, 「時調에 나타난 ‘老年’의 考察」, 『어문논집』 69, 중앙어문학회, 2017, 195~207쪽.

(UCI : G704-SER000009652.2017.69..005)

김아연, 「재미작가 흥언의 국화 소재 시조에 나타난 국화의 심상-<신한민보> 게재 작품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64,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291~318쪽.

(UCI : G704-001847.2017..64.009)

_____, 「흥언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의 내용과 작자의식」, 『한민족어문학』 88, 한민족어문학회, 2020, 90~91쪽.

(DOI : 10.31821/HEM.88.4)

_____, 「흥언의 ‘도산의 꽃동산’ 소재 시가 연구」, 『인문과학』 80,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39~74쪽.

(DOI : 10.31310/HUM.080.02)

____, 「홍언 해방공간 소재 시조의 내용과 작가의식」, 『운곡논총』 13, 운곡학회, 2023, 103~128쪽.

문무학, 「일제강점기 流移民 시조 연구-『新韓民報』를 중심으로-」, 『우리말글(구 대구어문론총)』 14, 우리말글학회(구 대구어문학회), 1996, 467~496쪽.

박미영, 「재미작가 홍언(洪焉: 1880~1951)의 시조 형식 모색과정과 선택」, 『시조학논총』 18, 한국시조학회, 2002, 163~202쪽.

(UCI : G704-001211.2002.18..007)

____, 「재미작가 홍언의 몽유가사·시조에 나타난 작가의식」, 『시조학논총』 21, 한국시조학회, 2004, 77~110쪽.

____, 「재미작가 홍언의 미국기행시기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적 작가의식」, 『시조학논총』 25, 한국시조학회, 2006, 175~210쪽.

(UCI : G704-001211.2006..25.006)

박영우, 「이태극 시조에 나타난 노년, 죽음의식 연구」, 『국어문학』 53, 국어문학회, 2012, 75~95쪽.

(UCI : G704-001819.2012.53.53.011)

방선주, 「洪焉과 國民會」, 『在美韓人の 獨立運動』,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범효춘, 「성공적 노화 관점에서 본 노인시조 주제 연구」, 가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빌헬름 슈미트 지음, 장경태 옮김, 『나이든다는 것과 늙어간다는 것-마음의 평정에 이르는 10가지 길』, 책세상, 2014.

이덕희, 「하와이의 한글 언론, 1904~1970」, 『미주 한인의 민족운동』,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해안, 2003.

이현정, 「한국 현대 노년시 연구 시론-노년시의 범주 및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45, 한국시학회, 2016, 257쪽 및 259~260쪽.

(UCI : G704-001014.2016..45.014)

이현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대표단의 귀국과 정치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6~7쪽.

(UCI : G704-001260.2003.20..007)

조춘희, 「현대시조에 나타난 ‘할머니’ 양상 연구-『우리시대 현대시조 100인선』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79, 한국문학언어학회, 2019, 255~281쪽.

(DOI : 10.22784/eomun.2019..79.255)

존 차 저, 문형렬 역, 「3. 어머니 이해런」, 『버드나무 그늘 아래-도산 안창호의 딸 안수산 이야기』, 문학세계사, 2003.

최선경, 「『청구영언(靑丘永言)』 소재 ‘노인시조’의 내용과 수사(修辭)에 대한 일고찰」, 『수사학』 37, 한국수사학회, 2020, 192쪽.

(DOI : 10.31325/KJR.2020.4.37.189)

Compiled by Duk Hee Lee Murabayashi ed., Korean Passengers Arriving at Honolulu, 1903-1905,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2001.

4. 인터넷 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생활천문관 음양력변환계산

(<https://astro.kasi.re.kr/Life/pageView/8>)

| Abstract |

The consciousness and expression of old age in Hong Eurn's elderly sijo

Kim, A-yun

Kwangju Women's Univ. Lecturer

On March 23, 1941, Hong Eurn(洪焉, 1880-1951), who worked as an independence activist, journalist, and write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USA, had the 60th birthday party in the Heungsadan(Young Korean Academy) meeting room in Los Angeles, USA. Before and after his 60th birthday party, he composed 25 works of elderly sijo(老人時調) and published them on the 'Sajo(詞藻)' section of The New Korea(Shinhan-Minb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consciousness and expression of old age in his elderly sijo. The gist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ly, this paper has explored the consciousness of old age expressed in his elderly sijo, including 'changes in the body, lamentation of aging, and futility,' 'ageless mind and envy of youth,' 'acknowledgment of aging and adaptation to nature,' and 'longing for home and confirmation of self-identity.' Secondly, this paper has determined the expression methods of old age shown in his elderly sijo, it strongly expresses the lyricism and realism about old age, which are the characteristics of 'poems in which the subject of speech is old age,' introduces natural objects and others that are distinct from the poetic speaker to express old age, and its by revealing emotions, old age reveals two sides, such as decrepitude·powerless·ugliness & maturity.

The following conclusion can be drawn as a result of this paper. His elderly sijo represented as if he had 'suffered' old age in the stream of time, but he recognized it as one of the natural phenomena and gradually accepted it positively. this paper, therefore, in the early stages of the creation of the elderly sijo, he presented the lamentation of aging, but in the end, he presented the maturity of completing his personality in old age. In this way, since his elderly sijo can confirm that the author's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old age has changed, it can be concluded that multipleness appears throughout his works.

Keyword : Hong Eurn, The New Korea(Shinhan-Minbo), old age, elderly sijo,
the consciousness of old age, the maturity